

지혜를 청하는 기도(지혜 9, 13 ~ 14)

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?

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?

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.

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
을 짓누릅니다.